

축구

10

2019년 2월 7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컨디션 회복한 권창훈 4경기 연속 선발 활약

디종 프랑스컵 8강행 기어



프랑스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권창훈(25·디종FC)이 4경기 연속 선발로 나섰다. 권창훈은 6일(한국 시간) 프랑스 노르파드칼레 노르주의 스타드 앙리 세노르에서 열린 2018~2019 프랑스컵(쿠프 드 프랑스) 16강전 이리스 클뤼프 드 크루아(4부리그)와 원정경기에서 4-3-3 전술의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장해 64분을 소화했다. 4경기 연속 선발 출장한 권창훈은 이날도 활발한 공격을 펼쳤다. 디종은 한 수위의 전력을 과시하며 3-0 완승을 거두고 8강에 진출했다.

권창훈은 이제 정상 컨디션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5월 중순 2017~2018 프랑스 리그1 최종전에서 오른쪽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중상을 당했다. 대표팀 주전 멤버가 유력했던 러시아월드컵에 차출되지 못했다. 수술 이후 약 7개월 동안 재활에 매진해 지난해 12월 20일 그라운드로 돌아왔다. 지난달 6일 프랑스컵 경기에서 부상 이후 처음 선발 출전해 시즌 첫 골을 넣었다. 지난달 27일 AS 모나코와 경기에선 리그에서도 마수결이 골을 신고하며 라운드 베스트11에도 선정됐다. 권창훈은 9일(한국시간) 마르세유와 리그1 홈경기에서 다시 한 번 득점을 노린다.

권창훈의 회복은 국가대표팀에도 청신호다. 최근 기성용, 구자철 등 잇따른 태극전사들의 은퇴로 중원이 약해진 벤투호는 권창훈의 복귀 시점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이젠 여자월드컵 | 6월까지 타임테이블 완성한 윤덕여호



윤덕여(오른쪽) 감독이 이끄는 여자축구 대표팀의 도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남자대표팀은 2019 AFC 아시안컵 8강에 그쳤지만 여자대표팀은 6월 개막하는 FIFA 월드컵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4년 전 캐나다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월드컵 16강 진출이 목표다.

사진제공 | KFA

마지막 캠프지 북유럽 낙점…왜?

〈스웨덴〉

노르웨이와의 조별리그 최종전 대비
이달 호주서 아르헨 등 4개국 친선전
4월 중 본선 출전 3개국 스팅링 계획

한국 남자축구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폐막한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8강 진출에 그쳤다. 하지만 도전의 여정이 여기서 끝은 아니다. 또 다른 메이저 국제대회가 기다리고 있다. 프랑스에서 6월 개막할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이다.

윤덕여 감독(58)이 이끄는 여자대표팀은 4년 전 캐나다 대회에 이은 2회 연속 월드컵 16강 진출을 노리고 있다. 쉽지는 않다. 개최국 프랑스와 나이지리아, 노르웨이와 조별리그 A조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 모두가 내로라하는 전통의 여

자축구 강호들이다.

태극낭자들의 전력 강화를 위해 윤 감독은 치열한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대회 본선까지 남은 기간 여자대표팀의 타임테이블은 거의 완성됐다. 첫 단추는 이달 호주에서 열릴 4개국 친선대회다. 시드니, 브리즈번, 멜버른을 이동하며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와 차례대로 실전을 갖는다.

이어 4월 중 FIFA A매치 기간을 이용해 국내에서 3개국을 초청해 친선 국제대회를 펼칠 예정이다. 아직 상대국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대한축구협회는 월드컵 본선 출전국을 위주로 섭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력 강화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추는 유럽 전지훈련이다. 월드컵 개막 한 달 전쯤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 소집해 2주 가량 손발을 맞춘 뒤 유럽으

로 떠나 보름 정도 최종 담금질을 한다. 행선지는 북유럽으로, 스웨덴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유력하다.

당초 윤 감독은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에서 사전훈련캠프를 진행하려 했으나 노르웨이와 조별리그 최종전(3차전)에서 16강 진출 여부가 가려진다고 보고 최대한 북유럽 스타일에 맞는 팀들과 스팅링 매치업을 갖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 그러면서 장소를 북유럽으로 선화하게 됐다. 체격이 크고 신장이 높은 선수들이 많은 북유럽 클럽들과의 가벼운 연습경기로도 큰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섰다.

대한축구협회 측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북유럽 훈련캠프를 추진 중이다. 올해 남은 큰 대회가 여자월드컵인 만큼 여자대표팀에게도 최대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무리뉴

이번 유죄 판결로 장의에서 다시 한 번 이미지 손상을 입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철창신세는 지지 않게 됐다. 스페인 법원은 폭력을 제외한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에게는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한편 무리뉴 감독은 5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대륙간아이스하키리그(KHL) 경기에 시구자로 나섰다가 빙판에 미끄러져 체면을 구긴 바 있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이번엔 탈세…또 체면 구긴 무리뉴

스페인서 징역 1년·벌금 28억 원
지난해 맨유 경질 이후 잇단 수난

조제 무리뉴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56·포르투갈)이 탈세 혐의로 또 한 번 체면을 구겼다.

영국 스카이스포츠 등 세계 주요 언론은 6일(한국시간) “탈세 혐의를 받는 무리뉴 감독이 스페인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과 218만2500유로(약 28억 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매체들은 “무리뉴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사령탑으로 재임하던 2011년과 2012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약 43억 원을 탈세했다”고 덧붙였다.

악재의 연속이다. 잉글랜드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지에서 최정상의 입지를 굳혔던 무리뉴 감독은 2016~2017시즌부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을 맡으며 수난을 겪었다. 지난 2017~2018시즌 팀을 2위로 이끌며 성공가도를 이었지만, 2018~2019시

경기 결과

프로농구

2018-2019 SKT 5GX 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모비스	41	31	10	0.756	0	2승
2	전차팬드	40	27	13	0.675	3.5	4승
3	KT	40	22	18	0.550	8.5	1승
4	LG	40	21	19	0.525	9.5	1패
5	KCC	41	21	20	0.512	10	3패
6	오리온	41	20	21	0.488	11	1패
8	DB	41	20	21	0.488	11	1승
8	KGC	41	19	22	0.463	12	1패
9	SK	40	12	28	0.300	18.5	1승
10	삼성	41	10	31	0.244	21	6패

부문별 중간순위

평균 득점			평균 도움			평균 리바운드		
선수	팀	득점	선수	팀	도움	선수	팀	리바운드
① 메이스 LG	26.2	① 박찬희 전차팬드	6.1	① 라건아 모비스	14.6			
② 포스터 DB	26.1	② 먼로 오리온	5.3	② 메이스 LG	13.7			
③ 펠프스 삼성	26.0	③ 해인즈 SK	5.3	③ 펠프스 삼성	13.6			
④ 브라운 KCC	25.5	④ 이정현 KCC	4.2	④ 윌리엄스 DB	13.2			
⑤ 라건아 모비스	24.3	⑤ 그레이 LG	4.0	⑤ 브라운 KCC	13.1			

경기결과

오리온	41	13-29	44	DB
(20승21패)	77	28-15	35	(20승21패)
삼성	44	18-31	51	SK
(12승28패)	72	26-20	34	(10승31패)
KGC	37	16-19	39	전차팬드
(19승22패)	69	21-20	39	(27승13패)
	32	13-20		
		18-19		

프로배구

도드람 2018-2019 남자프로배구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1	현대캐피탈	27	21	6	56	2491	2306	2승
2	대한항공	28	18	10	55	2670	2488	1승
3	우리카드	28	17	11	53	2422	2369	1패
4	삼성화재	27	15	12	42	2478	2444	1승
5	OK저축은행	28	14	14	42	2394	2397	1패
6	KB손해보험	28	10	18	30	2441	2583	1승
7	한국전력	28	2	26	13	2291	2600	4패

부문별 중간순위

총 득점			세트당 블로킹				
순위	선수	팀	득점	순위	선수	팀	블로킹
①	아가메즈	우리카드	806	①	신영석	현대캐피탈	0.68
②	요스바니	OK저축은행	717	②	지태환	삼성화재	0.65
③	타이스	삼성화재	671	③	박원빈	OK저축은행	0.60
④	파다르	현대캐피탈	641	④	김시훈	우리카드	0.57
⑤	벨리페	KB손해보험	583	⑤	박상하	삼성화재	0.56

경기결과

우리카드	0	23 - 25	3	대한항공
(17승11패)		19 - 25		(18승10패)
		20 - 25		

여자농구

2018-2019 우리은행 W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KB스타즈	25	20	5	0.800	0	11승
2	우리은행	25	19	6	0.760	1	2승
3	삼성생명	26	15	11	0.577	5.5	2승
4	OK저축은행	26	10	16	0.385	10.5	1승
5	KEB하나	26	9	17	0.346	11.5	4패
6	신한은행	26	4	22	0.154	16.5	3패

스포츠토토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프로농구

2018-2019 SKT 5GX 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모비스	41	31	10	0.756	0	2승
2	전차팬드	40	27	13	0.675	3.5	4승
3	KT	40	22	18	0.550	8.5	1승
4	LG	40	21	19	0.525	9.5	1패
5	KCC	41	21	20	0.512	10	3패
6	오리온	41	20	21	0.488	11	1패
8	DB	41	20	21	0.488	11	1승
8	KGC	41	19	22	0.463	12	1패
9	SK	40	12	28	0.300	18.5	1승
10	삼성	41	10	31	0.244	21	6패

부문별 중간순위

평균 득점			평균 도움			평균 리바운드		
선수	팀	득점	선수	팀	도움	선수	팀	리바운드
① 메이스 LG	26.2	① 박찬희 전차팬드	6.1	① 라건아 모비스	14.6			
② 포스터 DB	26.1	② 먼로 오리온	5.3	② 메이스 LG	13.7			
③ 펠프스 삼성	26.0	③ 해인즈 SK	5.3	③ 펠프스 삼성	13.6			
④ 브라운 KCC	25.5	④ 이정현 KCC	4.2	④ 윌리엄스 DB	13.2			
⑤ 라건아 모비스	24.3	⑤ 그레이 LG	4.0	⑤ 브라운 KCC	13.1			

경기결과

오리온	41	13-29	44	DB
(20승21패)	77	28-15	35	(20승21패)
삼성	44	18-31	51	SK
(12승28패)	72	26-20	34	(10승31패)
KGC	37	16-19	39	전차팬드
(19승22패)	69	21-20	39	(27승13패)
	32	13-20		
		18-19		

프로배구

도드람 2018-2019 남자프로배구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1	현대캐피탈	27	21	6	56	2491	2306	2승
2	대한항공	28	18	10	55	2670	2488	1승
3	우리카드	28	17	11	53	2422	2369	1패
4	삼성화재	27	15	12	42	2478	2444	1승
5	OK저축은행	28	14	14	42	2394	2397	1패
6	KB손해보험	28	10	18	30	2441	2583	1승
7	한국전력	28	2	26	13	2291	2600	4패

부문별 중간순위

총 득점			세트당 블로킹				
순위	선수	팀	득점	순위	선수	팀	블로킹
①	아가메즈	우리카드	806	①	신영석	현대캐피탈	0.68
②	요스바니	OK저축은행	717	②	지태환	삼성화재	0.65
③	타이스	삼성화재	671	③	박원빈	OK저축은행	0.60
④	파다르	현대캐피탈	641	④	김시훈	우리카드	0.57
⑤	벨리페	KB손해보험	583	⑤	박상하	삼성화재	0.56

경기결과

우리카드	0	23 - 25	3	대한항공
(17승11패)		19 - 25		(18승10패)
		20 - 25		

여자농구

2018-2019 우리은행 W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KB스타즈	25	20	5	0.800	0	11승
2	우리은행	25	19	6	0.760	1	2승
3	삼성생명	26	15	11	0.577	5.5	2승
4	OK저축은행	26	10	16	0.385	10.5	1승
5	KEB하나	26	9	17	0.346	11.5	4패
6	신한은행	26	4	22	0.154	16.5	3패

스포츠토토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프로농구

2018-2019 SKT 5GX 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모비스	41	31	10	0.756	0	2승
2	전차팬드	40	27	13	0.675	3.5	4승
3	KT	40	22	18	0.550	8.5	1승
4	LG	40	21	19	0.525	9.5	1패
5	KCC	41	21	20	0.512	10	3패
6	오리온	41	20	21	0.488	11	1패
8	DB	41	20	21	0.488	11	1승
8	KGC	41	19	22	0.463	12	1패
9	SK	40	12	28	0.300	18.5	1승
10	삼성	41	10	31	0.244	21	6패

부문별 중간순위

평균 득점			평균 도움			평균 리바운드		
선수	팀	득점	선수	팀	도움	선수	팀	리바운드
① 메이스 LG	26.2	① 박찬희 전차팬드	6.1	① 라건아 모비스	14.6			
② 포스터 DB	26.1	② 먼로 오리온	5.3	② 메이스 LG	13.7			
③ 펠프스 삼성	26.0	③ 해인즈 SK	5.3	③ 펠프스 삼성	13.6			
④ 브라운 KCC	25.5	④ 이정현 KCC	4.2	④ 윌리엄스 DB	13.2			
⑤ 라건아 모비스	24.3	⑤ 그레이 LG	4.0	⑤ 브라운 KCC	13.1			

경기결과

오리온	41	13-29	44	DB
(20승21패)	77	28-15	35	(20승21패)
삼성	44	18-31	51	SK
(12승28패)	72	26-20	34	(10승31패)
KGC	37	16-19	39	전차팬드
(19승22패)	69	21-20	39	(27승13패)
	32	13-20		
		18-19		

프로배구

도드람 2018-2019 남자프로배구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1	현대캐피탈	27	21	6	56	2491	2306	2승
2	대한항공	28	18	10	55	2670	2488	1승
3	우리카드	28	17	11	53	2422	2369	1패
4	삼성화재	27	15	12	42	2478	2444	1승
5	OK저축은행	28	14	14	42	2394	2397	1패
6	KB손해보험	28	10	18	30	2441	2583	1승
7	한국전력	28	2	26	13	2291	2600	4패

부문별 중간순위

총 득점			세트당 블로킹				
순위	선수	팀	득점	순위	선수	팀	블로킹
①	아가메즈	우리카드	806	①	신영석	현대캐피탈	0.68
②	요스바니	OK저축은행	717	②	지태환	삼성화재	0.65
③	타이스	삼성화재	671	③	박원빈	OK저축은행	0.60
④	파다르	현대캐피탈	641	④	김시훈	우리카드	0.57
⑤	벨리페	KB손해보험	583	⑤	박상하	삼성화재	0.56

경기결과

우리카드	0	23 - 25	3	대한항공
(17승11패)		19 - 25		(18승10패)
		20 - 25		

여자농구

2018-2019 우리은행 W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KB스타즈	25	20	5	0.800	0	11승
2	우리은행	25	19	6	0.760	1	2승
3	삼성생명	26	15	11	0.577	5.5	2승
4	OK저축은행	26	10	16	0.385	10.5	1승
5	KEB하나	26	9	17	0.346	11.5	4패
6	신한은행	26	4	22	0.154	16.5	3패

스포츠토토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프로농구

2018-2019 SKT 5GX 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모비스	41	31	10	0.756	0	2승
2	전차팬드	40	27	13	0.675	3.5	4승
3	KT	40	22	18	0.550	8.5	1승
4	LG	40	21	19	0.525	9.5	1패
5	KCC	41	21	20	0.512	10	3패
6	오리온	41	20	21	0.488	11	1패
8	DB	41	20	21	0.488	11	1승
8	KGC	41	19	22	0.463	12	1패
9	SK	40	12	28	0.300	18.5	1승
10							

•부문별 중간순위

평균 득점			평균 도움			평균 리바운드		
선수	팀	득점	선수	팀	도움	선수	팀	리바운드
① 쏘튼	KB스타즈	21.2	① 안해지	OK저축은행	6.6	① 토마스	우리은행	12.5
② 단타스	OK저축은행	20.1	② 김단비	신한은행	6.4	② 박지수	KB스타즈	11.8
③ 파커	KEB하나	18.0	③ 박해진	우리은행	5.2	③ 파커	KEB하나	11.4
④ 김단비	신한은행	15.7	④ 배해운	삼성생명	4.0	④ 쏘튼	KB스타즈	9.8
⑤ 먼로	신한은행	14.4	⑤ 임영희	우리은행	3.6	⑤ 단타스	OK저축은행	9.7

해외축구

•르상피오나

경기							득점		
팀	경기수	승점	승	패	무		선수	팀	득점
1 파리생제르맹	21	56	18	1	2	① 음바페	파리생제르맹	18	
2 릴	23	46	14	5	4	② 카바니	파리생제르맹	16	
3 올림피크리옹	23	43	12	4	7	② 페레	릴	16	
4 생테티엔	23	38	10	5	8	④ 네이마르	파리생제르맹	13	
5 스트라스부르	23	36	9	5	9	⑤ 실라	낭트	12	
6 몽펠리에	22	36	9	4	9	⑤ 카즈리	생테티엔	12	
7 마르세유	23	34	10	9	4	⑦ 도방	마르세유	11	
8 스타드드렝스	23	34	8	5	10	⑧ 뱌바	릴	9	
9 니스	23	34	9	7	7	⑧ 그라멜	몽루즈	8	
10 스타드렌	23	33	9	8	6	⑧ 멜로트	몽펠리에	8	
11 남 울렝픽크	23	30	8	9	6	⑧ 라보르데	몽펠리에	8	
12 보르도	22	28	7	8	7	⑧ 모티바	스트라스부르	8	
13 앙제	23	27	6	8	9	⑧ 카마노	보르도	8	
14 툴루즈	23	26	6	9	8	⑧ 팔카오	AS모나코	8	
15 낭트	22	24	6	10	6	⑧ 델발레	올림피크리옹	7	
16 디용FCO	22	20	5	12	5	⑧ 바요르	앙제	7	
17 캉	22	18	3	10	9	⑧ 투람	갱강	7	
18 AS모나코	23	18	4	13	6	⑧ 페키르	올림피크리옹	7	
19 아미앵	23	18	5	15	3	⑧ 생 미랑	니스	6	
20 갱강	22	14	3	14	5	⑧ 아우아르	올림피크리옹	6	

•르상피오나 경기결과

마르세유	1	-	0	보르도
------	---	---	---	-----



케이로스 떠난 이란 대표팀 새 감독 판마르바이크 거론

이란축구를 한 차원 끌어올린 카를로스 케이로스(66·포르투갈) 감독은 유독 한국축구에 강했다. 2011년부터 이란을 이끌면서 한국과 경기에서 단 한번도 지지 않았다. 반대로 한국은 1무4패로 케이로스의 이란만 만나면 고개를 숙였다. 그런 케이로스가 최근 이란을 떠났다. 그는 2019 아시안컵이 끝난 뒤 공식적으로 결별했고, 콜롬비아대표팀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로스의 후임은 우리에게도 관심사다. 어쨌든 아시아 무대에서는 최고의 자리를 놓고 자웅을 겨뤄야하기 때문이다.

이란의 새 사령탑에 베르트 판마르바이크(67·네덜란드) 전 호주대표팀 감독이 거론되고 있다. 폭스 스포츠 아시아판을 비롯한 외신들은 5일(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사드 알 하티 기자의 트위터 제정을 인용해 “판마르바이크 감독이 케이로스 감독을 대신해 이란대표팀을 이끌 예정이다”고 전했다. 계약 기간이 4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판마르바이크는 지략이 돋보이는 세계적인 명장이다. 2010년 남아공월드컵 때 네덜란드대표팀을 맡아 결승까지 올려놓으며 주가를 한껏 높였다. 당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스페인에 지긴 했지만 판마르바이크는 화려함을 버리고 실리축구의 진수를 보여줬다.

판마르바이크는 이후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 감독에 이어 2015~2017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대표팀을 이끌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따냈지만 전격적으로 경질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지난해 1월부터 호주대표팀을 맡아 러시아월드컵에 출전하는 등 아시아 축구 사정에 밝다는 평가다.

그는 한 때 한국대표팀과도 인연이 닿을 뻔했다. 2014년 브라질월드컵에서 실패